# "사랑으로 연말연시 따뜻함 전하세요"

제주사랑의열매 '희망 2023 나눔캠페인' 개시 적십자사도 30일 모금 선포식 갖고 활동 시작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제주의 온도 를 높이는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이 일제히 시작됐다.

제주사랑의열매는 30일 제주특 별자치도청 로비에서 '희망2023 나 눔캠페인'출범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다.

올해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제주'라는 슬로건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지며 모금 목표액은 불 안정한 경제상황에서 늘어난 복지 수요를 반영해 같은 기간 최고 금 액인 40억4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제주사랑의열 매 명예회장인 오영훈 도지사와 김 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주 요 기부자, 도나눔봉사단 등이 참 석해 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했다.

캠페인 출범과 함께 개인・단체・ 기업 1호 기부자가 탄생했다. 기업 1호 기부자로 (주)오현개발이 제주 나눔 명문기업 6호로 가입하며 성 금 1억원을 기부했으며, 하나약국 심윤주 공동대표는 성금 1억원을 기부하며 캠페인 1호 개인 기부와 함께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133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단체 1호 기부

급격히 추워진 날씨와 함께 어려운 자는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로 한돈 1700kg을 기부했다. 제주사랑의열매는 방송사와 사 랑의열매 사무처에 모금 접수창구 를 운영할 계획이며 도내 전 지역 금융기관과 약국, 읍·면·동주민센 터에 비치된 모금함을 이용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 또 제주시 노형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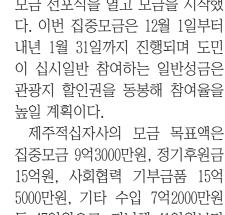
코드를 통해서도 간편 결제 방식으 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제주사랑의열매 강지언 회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외환위기 이 후 최악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어 가장 힘든 캠페인이 될 것으로 예 상한다"며 "제주 사회가 많은 위기 를 함께 극복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눔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 린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 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QR 사도 같은 날 '적십자 희망나눔 모

금! 나눔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모금 선포식을 열고 모금을 시작했

등 47억원으로, 지난해 41억원보다 6억원 증가했다. 김도영기자





도내 29개 시민단체 등이 30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연대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 "화물연대 파업 원인 현 정부에 있다"

도내 29개 시민단체·정당, 총파업 지지 선언

제주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 당 등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규탄하며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제 주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정당 (이하 총파업 지지 단체)은 30일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공동 기자회 견을 열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총파업 투쟁을 지지 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지지 단체는 기자회견문 을 통해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 은 지난 6월 파국 직전 어렵사리 합의한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이행 하지 않은 결과"라며 "국토부는 합 의 실행을 위한 대화는 외면한 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 종과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가 전 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의 원인은 국 토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 다"고 강조했다.

총파업 지지단체는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 엄정 대응 등을 운운하 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이 제도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 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가 강 하다"며 "2004년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제도를 윤 대 통령은 민생과 경제 위기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합의의 불이 행에 대해 사과하고 화물연대와 진 정성 있는 대화 및 교섭에 국토부 가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지금 윤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안전운 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위해 화물 연대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제주사랑의열매는 30일 제주도청 로비에서'희망2023 나눔캠페인'출범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다. 사랑의열매는 내년 1월말까 지 두 달간 진행하는 캠페인을 통해 40억4000만원의 모금을 목표로 세웠다. 이상국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 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 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 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 제4차 계절관리기간에도 각 분야별 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12월~3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12월 1일 제1차 계절관리제를 시작했으며, 올해 12월부터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돌입한다. 1~3차 계절관리

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좋음・ 나쁨 일수도 개선됨에 따라 이번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고농도 ▷수송 ▷산업 ▷생활 ▷기타 등 4 개 분야·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 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주차된 고급차 노린 40대 차량털이범 구속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대상으로 현 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40대가 검 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제주시의 주차된 차량 4대에서 590 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상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문이 잠 겨있지 않은 고급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훔친 현금 등

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 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와 주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이 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어오다 지난 23일 제주시의 한 모 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 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 의 친형을 사칭하기도 했다.

>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같은 범 행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 났으며 경찰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 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도영기자

####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벌금형

주행 중 진로를 변경하다 오토바이 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택시 기 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바꾸는 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B씨를 숨 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의 피해가 발생했다.

### 주행하던 승용차 화재

생했다.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엔진에서 불 이 나 700만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

30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 난 29일 오후 3시15분쯤 제주시 이 도1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A씨는 주행 중 엔진룸 연기를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 시46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 주변에 있던 시민이 소화기를 이용 해 자체 진화했다. 이 불로 다행히 과정에서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차량 엔진룸 이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770만원 김도영기자



NAVER에 □랜드보청기 ▼ ○ 를 검색해 주세요

**5**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AJJ < ○ 그랜드보청기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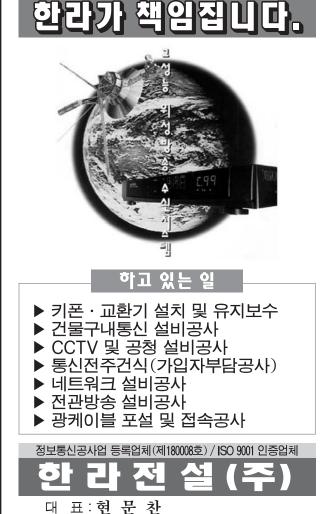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테니널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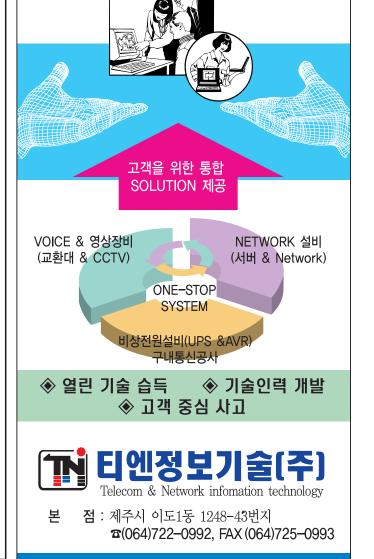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제주 통신기반 구축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